

사고일에 멈춰선 시간

2024. 12. 29.

눈물은 멈추지 않아요

제주항공 참사 1년 유가족 30명의 고통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희생자 179명의 유가족들에게는 살아있지만 살아 있는 것만도 못한, 말 그대로 죽은 것과 같이 보낸 시간이었다. (관련기사 2·3·4·5면)

광주일보는 참사 아픔과 겪은 유가족 30명을 만나 그들이 겪은 1년을 그려봤다. 대다수의 참사 유가족들이 트라우마와 가족을 잊은 슬픔에 인터뷰 조차 손사래를 친 가운데 작은 용기를 낸 이들의 목소리다.

광주일보가 만난 참사 유가족 30명은 사고 이후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을 그만두고 약에 의존해 잠을 청하거나,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이들에 게 슬픔과 고통은 과거가 아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상처다.

지난 24일 무안군 망운면 무안공항에서 만난 유가족 박인숙(69)씨는 참사로 아내와 딸, 사위, 손주 2명 등 5명을 한꺼번에 잊고 지금도 충격에서 해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1년 동안 공항 텔러에서 지내오며 미친 놈처럼 살았다”며 “하루 아침에 가족을 한꺼번에 잊은 사람으로서 목청 높이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며 1993년 서해 폐리호 침몰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에도 투입되면서 참사를 지켜보고, 희생자 수습을 도왔던 이다. 그럼에도 이제는 참사 유가족 당사자가 되면서 박씨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한다. 박씨는 “내가 ‘산’ 자라는 사실 자체가 죽은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끝내 말을 잊지 못했다.

트라우마로 사회생활 뿐 아니라 일상생활조차 대로 할 수 없게 된 이들도 다수였다.

사고로 남편을 잊고 혼자 남은 박귀숙(여·62)씨는 “목포에서 남편과 살았는데, 얼굴도 제대로 보기 못한 채 떠나보낸 남편이 너무 그립다”고 오열했다. 남편과 함께 운행하던 가게도 폐업해 생계도 어려운 상황이다.

박씨는 친구나 친척도 만나지 않고 인간관계를 거의 끊은 채 지내고 있었다. 신경안정제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고 주말이면 서울에서

“사는게 아닌 그냥 숨 쉬고 있어
날마다 딸 이름 부르며 통곡
아들 휴대전화 요금 내고 보관
돌아가신 부모님께 매일 카톡
진상규명만이 유일한 위로될 것”

주사를 맞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어디에 말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다른 유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참사로 30살 아들을 잊은 이경님(여·65)씨는 “친구도 못 만나고 집안 식구도 못 만난다. 삶이 아니라 그냥 숨 쉬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흐렸다. 남편과 사별한 최말례(여·63)씨는 “남편이 얼마나 무섭고 절박한 마음이었을지 자꾸 떠오른다. 사람들은 시선이 두려워 밖으로 다니는 것 자체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은(여·52)씨는 “사고 이후 직장도 그만두고 외부활동을 아예 못 한 채 1년을 보냈다. 큰 딸도 회사에서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더라”며 “1년 내내 잠을 자다 딸 이름을 부르며 깨서 통곡하고 밤을 새우는 날이 반복됐다. 매일 방을 들여다보고, 저녁에 왜 안 들어오냐며 전화를 걸기도 한다”고 눈물을 보였다.

딸과 손주 3명을 잊은 심금자(여·70)씨는 지난 여름부터 오른쪽 귀 소리가 안 들리는데 보청기를 착용해도 먹먹하고, 머릿속에선 환경이 들리는 상황이다.

유가족들의 시간은 1년 전 12월 29일에 멈춰 있었다. 심정덕(여·68)씨는 지금도 휴대전화 배경화면에 사별한 남편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준화(68)씨는 어머니의 방을 건드리지 않은채 옷장, 화장대, 쓰던 빗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필(71)씨는 고장난 채 수습된 아들의 휴대전화를 고쳐 비밀번호를 풀었고, 한 달에 1만2000원씩 통신요금을 내면서 보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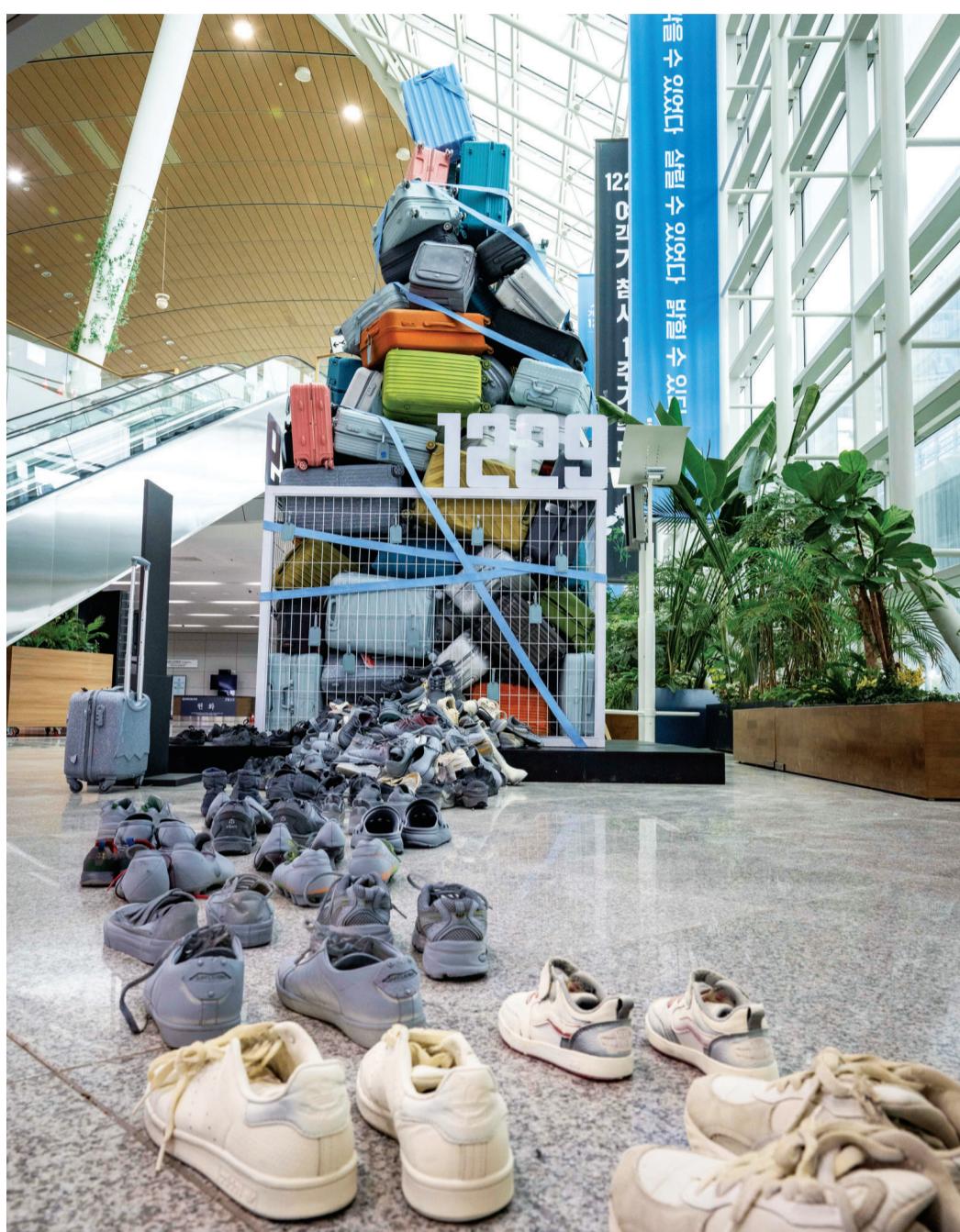
부모와 사별한 20대 A씨는 추모 프로필로 바뀐

부모의 카카오톡에 매일같이 메시지를 보낸다. 승진했다는 이야기, 동생과 여행을 떠났다는 이야기, 보고싶다는 말까지 해 보지만 한없이 기다려도 ‘읽음’ 표시가 뜨질 않는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유가족들은 어떤 말도, 어떤 상담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조금이라도 이들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려면, 결국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마음이었다. A씨는 “유가족에게 가장 큰 위로는 ‘진상규명’이다. 배상금 받아봐야 부모님이 살아 돌아오시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누구 하나 참사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어떤 말도, 어떤 상담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조금이라도 이들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려면, 결국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마음이었다. A씨는 “유가족에게 가장 큰 위로는 ‘진상규명’이다. 배상금 받아봐야 부모님이 살아 돌아오시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누구 하나 참사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김진아·서민경·양재희·윤준명 기자 jinggi@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둔 25일 무안국제공항 로비에 희생자 수와 같은 179개의 여행용 캐리어를 쌓아 만든 추모 작품 '캐리어 179: 뭉디 한 여행의 기록'이 설치돼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오늘 하루 종일 영하권 강추위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강추위가 이어진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로 주말인 27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3~7도 가량 낮은 추운 날씨가 이어져 한파특보가 지속되겠”고 예보했다.

전남 동부지역은 26일 새벽까지, 광주·전남 서부지역은 26일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26일까지 전남서해안에는 3~8cm, 광주와 전남 서부 1~5cm, 전남동부에는 1cm 안팎

이다. 26일 아침까지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25일 밤 9시부터 고성·구례·회순·고흥·보성·광양·순천 등 전남 동부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또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영하 2도,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영하 2도, 주말인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1도까지 내려가겠다고 예보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목포대·순천대 통합 살려야

국립의대 개교 희망 살린다

통합 공동추진위원회 대책 논의

순천대 학생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7면)

지역에서는 전남의 숙원인 국립의대 설립이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2027년 의대 개교를 위한 양 대학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두 대학은 지난 23일 치러진 통합 찬반 투표에서, 순천대 학생들의 반대(60.68%)로 통합이 부결됐다.

하지만, 순천대와 목포대는 금명간 통합 공동추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 비상한 관심을 모으다.

아직 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회의에서는 재투표 여부와 재투표 대상을 찬성을 50%를 넘어서지 못한 순천대 학생으로만 축소할지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간이다. 두 대학의 통합을 심사 중인 ‘국립대 통폐합심사위원회’가 교육부에 최종 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 시한은 다음 달 중순까지로, 이 기간 내에 순천대가 통합 등의 기준을 넘어야 한다면 대학 통합이 가능하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두 대학 통합은 전남 국립의대 개교와 직결돼 있어, 양 대학이 조만간 열릴 공동추진위 회의에서 긍정적인 협의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비 온데 땅이 굳는다고 했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다시 한 번 집단지성으로 생각해볼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순천시민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다”고 페이스 북에서 밝혔다.

한편, 통합 투표결과, 순천대 학생의 찬성을 38.82%에 그쳤다. 순천대는 교원과 직원·조교, 학생 등 세 직역에서 모두 찬성을 50%를 넘기는 것을 통합 등의 기준으로 설정했었다. 순천대 교원(56.12%)과 직원·조교(80.07%)의 통합 등의에도 학생들이 반대 의사에 결국 통합 기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반면, 목포대는 세 직역 중 두 직역에서 찬성을 50%를 넘길 경우를 통합 등의 기준으로 설정했는데, 투표 결과 모든 직역에서 찬성을 50%를 초과했다.

구성원 찬반 투표는 대학 통합에서 가장 끼다로운 절차로 꼽힌다. 당장, 통합을 추진 중인 충북대와 한국교통대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두 번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지만,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설립자 성인
(省仁) 박기인 명예이사장님께서 2025년 12월 24일 오전 10시 26분 향년 92세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다음과 같이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죽음으로 영결식을 거행함을 삼가 알려 드립니다.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 고인의 연락처: ...호남대학교
유지에 따라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062-940-5878)

집행위원장	집행위원장	장례위원장	장례위원장
전종주	김관선	이정선	박준일
변재영	한상원	임안도	류영현
최영화	한상원	김인택	김병내
송창수	김혜숙	전갑수	구길용
하재우	김혜숙	양부남	김영록
한유선	김광택	이경수	김경이
한영민	김덕모	민형배	강남
황용선	김현철	정준호	김낙곤
이동우		정진욱	김창승
황용선		정진욱	김대중

손사자부녀	영결식	소... 호남대학교
박선후	.. 2025년 10월 30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대길 100)
박창훈	2025년 12월 28(일)	호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박성원	2025년 12월 28(일)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
박준호	2025년 12월 28(일)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
박병규	2025년 12월 28(일)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

부
고